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제30호 2019. 06. 89~106쪽
10. 33639/ptc. 2019. . 30. 005

한국어 상(Aspect)의 영상도식 분석

-'-어 있다'와 '-고 있다'를 중심으로-

이림용·한용수*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한국어 상(Aspect)의 영상도식 분석
3. '-어 있다'의 상적 의미 및 영상도식
4. '-고 있다'의 상적 의미 및 영상도식
5. 맺는 말

【요약문】 상(aspect)은 시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상황의 시간경과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게 하는데 한국어 보조용언 '있다'는 어휘적 의미보다 문법적인 기능을 갖는 특성이 있으므로 문장에서 상과 같은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 본문은 한국어 보조용언 '있다'의 두 가지 양상 '-어 있다'와 '-고 있다'를 중심으로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한국어 상 체계를 분석한다. 먼저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상 체계와 완료적 과정 및 미완료적 과정의 도식화 양상을 살펴보고 미완료적의 확장 양상을 제시한다. 또한 Langacker(2000)가 제시한 '무대 모델(Stage Model)'을 이용하여 양 과정을 도식화 한다. 무대 모델을 통하여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특징을 밝혀보고 완료상 '-어 있다', '-고 있다2'의 영상도식을 그린다. 그리고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지, 동작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지 혹은 시간 반복적인지에 따라 진행상 '-고 있다1'의 영상도식을 나눠서 제시한다. 상과 같은 추상적인 문법 양상이나 개념은 영상도식을 통하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형태적·통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 측면에서까지 한국어를 이해하게 되면 한국어 학습이 더 효율적이고 언어 사용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주제어】 상, 인지문법, 무대 모형, 영상도식, -어 있다, -고 있다

* 주저자 : 이림용(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교신저자 : 한용수(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www.kci.go.kr

1. 들어가는 말

한국어 보조용언 '있다'는 어휘적 의미보다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므로 문장에서 상(Aspect)과 같은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 상은 시간 속에서 어떤 위치인지에 관계없이 상황의 시간경과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상을 상황유형(situation type, 어휘상)과 관점상(viewpoint aspect, 문법상)으로 나누었다. 한국어의 상적 의미도 상황유형과 관점상의 상호작용에 의해 실현된다는 견해가 많다. 동사의 어휘상을 다룰 때에는 목적어나 부사어와 함께 전체 동사구의 상을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고찰된 상적 의미를 상황유형이라 한다. 한국어 상에 관련된 형태는 '-고 있다', '-어 있다', '-곤 하다', '-어 버리다' 등이 연구자마다 다르게 제시한다. '-어 있다', '-고 있다'에 대해 의미·통사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1975)는 '-고 있-'을 '나아감(미완료 지속)'으로 규정하였다. 임홍빈(1975)은 '-어 있-'은 '끝이 있는 동사에만 결합한다'는 제약을 제시하였고, 서정수(1976)는 '-고 있다'는 '-고서 있다'의 축약으로 보는 결과성의 '-고1 있다'와 동작이 완료된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고2 있다'로 분석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85)은 상 체계를 '완료상', '예정상'과 '진행상'으로 나누었는데, '-어 있다'는 완료상에 속하고, '-고 있다'는 진행상에 속한다. 이숭녕(1986)은 '-어 있-'은 대체로 '현재완료 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김성화(1990)는 먼저 상을 지속상과 종결상으로 나누고 그 양상에 따라 하위유형을 설정하고, '-고 있다'를 지속상 안의 단순지향성 진행을 나타내는 '-고1 있다'와 종결상 안의 타동성을 나타내는 '-고2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태구(1994)는 '-어 있-'의 의미론적 제약은 '한계 제약', 통사론적 제약은 '타동사 제약'이라 제시하였으며, 이호승(2001)은 문장의 상적 의미가 상황유형과 보조용언의 상적 의미의 합성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논의했다. 권순구(2003)는 보조용언 '있다'의 상적의미는 '있다'의 의미가 아니라 연결어미와의 결합체로서의 의미라고 하였다. 고영근(2004)은 '-고 있다1'를 진행상으로 보고 '-고 있다2'를 완료상으로 보았으며, 박종후(2016)는 본용언의 개념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조용언 '있다'의 결합제약과 상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어 있다'와 '-고 있다'의 상적 의미, 통사적 제약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그의 상적 의미 및 선행동사와의 결합제약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인지 및 사고방식, 그리고 상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도식화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인지문법은 사람들이 가

www.kci.go.kr

지고 있는 많은 언어 지식이 도식성의 관점에서 실제로 접하는 표현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다. 인간의 신체 움직임, 사물 조작, 지각적 상호작용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경험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Johnson. M(1987)은 이런 패턴을 '영상도식'이라고 한다. '영상도식'은 '구체적인 풍부한 영상보다 상위에 있는 일반성과 추상성의 층위에 있다. 영상도식의 도식성 때문에 '무한히 많은 지각, 영상, 사건'을 유사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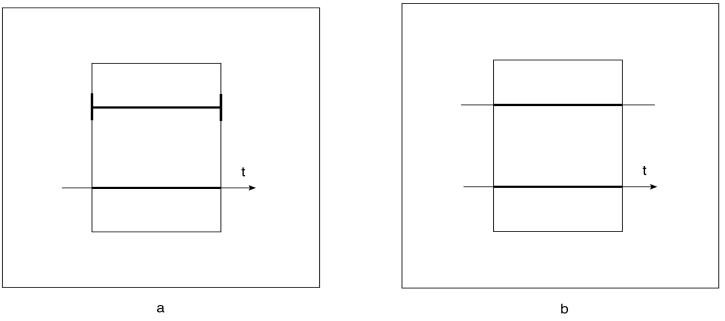
본고는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한국어 상 체계를 살펴보고 '-어 있다'와 '-고 있다'를 중심으로 상적 의미와 영상도식을 밝히는 데 목적이 된다. 상과 같은 추상적인 문법 개념은 도식을 통하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으면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도 인지 측면에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어 사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한국어 상(Aspect)의 영상도식 분석

'상(Aspect)'이라는 용어는 러시아어 vid(보다)를 사용했다. 러시아어에서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형태소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의 형식을 갖는데, 이들은 상황을 조감하는(viewing) 두 가지 방법, 즉 완료(perfective)와 미완료(imperfective)를 표현한다.[1] Comrie. B(1976)에서는 상은 상황의 내적인 시간구성을 바라보는 상이한 방법들이라고 제시하였다. 완료상이란 상황이 내적 시간구성에 관한 명확한 지시 없이 전체적으로 제시된다는 뜻이고, 미완료상이란 내적 시간구성에 대한 지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상은 상황이 시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간경과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지룡·김동환 역 (2005)은 완료적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묘사는 시작과 끝을 참조한다. 즉, 일시적인 한정이고 미완료적 과정은 그것을 묘사할 때 시작이나 끝을 참조하지 않는 과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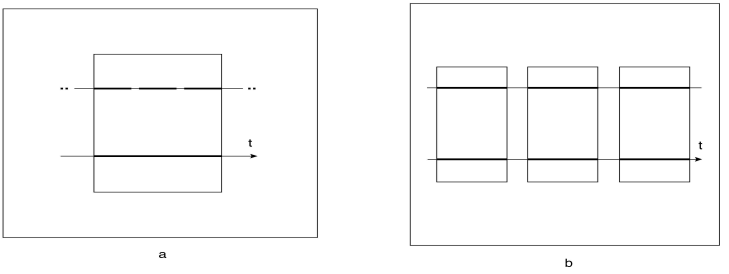
1) 'perfective'과 'imperfective'의 해당 용어에 대해 완료상과 미완료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perfective aspect'는 사태를 온전히 시야에 넣고 바라본다는 데 있으므로 '완망상'과 '비완망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림1> 완료적 과정과 미완료적 과정의 도식화 양상[2)]



(1a)는 완료적 과정이고 윤곽부여된 시간 구역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종결점을 포함한 변화하는 관계를 윤곽으로 한다. (1b)는 미완료적 과정을 나타낸다. 과정의 한 구역만 윤곽 속에 있다. 완료적과 미완료적 구별에 중요한 것은 과정이 완료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시간적 경계가 윤곽부여된 과정의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3)] 미완료적 과정은 윤곽부여된 구역의 범위를 넘어 확장될 수도 있다. Comrie, B(1976)에서도 내적 시간구성에 대한 지시를 포함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본고는 미완료적 과정의 도식화 양상을 바탕으로 미완료적 과정의 확장 도식을 제시한다.

<그림2> 미완료적 과정이 확장된 도식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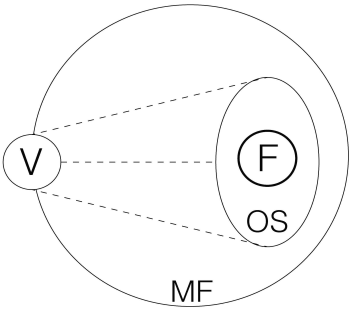
2) 존 테일러 저,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문법』, 2005, 441쪽, 참조.
3) 존 테일러 저,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문법』, 2005, 441쪽, 참조.

www.kci.go.kr

(2a)는 윤곽부여된 시간 구역에서 사건이 반복적인 과정으로 확장되어 있다. (2a)와 달리 (2b)는 윤곽 부여된 구역 자체가 반복되고 시간 축에서 규칙적으로 분포한다. 이런 과정은 사건을 서술하는 동작에 대한 일정한 요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황 유형적 표시도 동반해야 실현될 수 있다. Smith. C. S(1997)에서도 전체 문장의 상적 의미는 상황유형과 관점상이 상호작용하여 합성적으로 상적 의미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서술할 때 구문의 상 표시, 본동사, 부사어 등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상에 관련된 문장을 내부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발화자의 입장에서도 고찰해야 한다.

인간들은 외부 세계를 관찰할 때 인지적 파악이 필요하다. 관찰자의 경험은 관찰되는 개체에 대한 자신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들이 아무리 별개이거나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관찰'이라는 사실 그 둘 사이의 관찰 대상들의 전체적인 환경을 내재적으로 변경하고 관찰자를(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관찰의 범위 속으로 끌어들이는 연결을 이룩한다. 언어의 경우에 '관찰자'를 '화자'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화자의 관찰 경험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Langacker(1991)는 무대 모델(Stage Model)의 원형을 제시하였고, Langacker(2000)는 무대 모델과 당구공 모형(Billiard-ball Model)을 결합해서 전형사건구조모형을 만들었다.

<그림3> Langacker(2000)에서 제시된 전형사건구조모형



그림을 보면 먼저 관찰자(V: Viewer)가 있고, 어떤 발생한 순간에 관찰자는 특정한 방향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여 그는 최대 관찰 지역(MF: Maximal Field), 즉 이 방향성이 주어졌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무대 은유를 이용하여, 관찰자는 중심을 무대 위의 지역(OS: Onstage Region)이라 부른다. 우리의 시선을 옮김으로써,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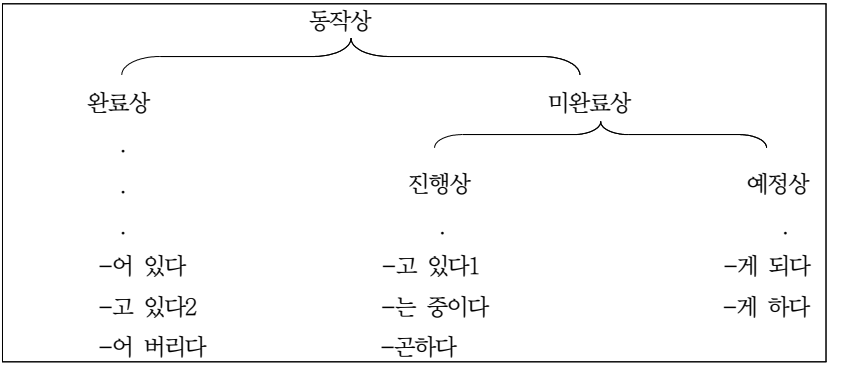
우리는 관찰하는 특정한 부분, 즉 초점(F: Focus)을 선택할 수 있다. 사건의 시간 경과를 관찰하고 문자로 표현하기, 음성으로 전달하기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언어가 형성되고 문법이 이루어진다. 상 체계가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한국어 보조용언 '있다'는 '-어 있다', '-고 있다'로 나눈다. 본용언과 달리 보조용언은 어휘적 의미보다는 상적인 속성을 갖는다. '-어 있다'와 '-고 있다'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어 있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고 있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어 있다'의 뜻풀이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라는 말을 통해 선행동사에 대한 요구를 알 수 있다. 바로 본용언은 표시된 행동이나 변화가 이미 끝난 상태에 처해야 한다. 즉, 표현된 과정은 완료된 과정에 있다. 그러나 '-고 있다'의 뜻풀이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와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의 뜻은 전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행동으로 미완료 과정이고 후자는 완료 과정이다.

<표1> 동작상[5] 체계와 형태배치



<표1>은 고영근(2004)이 제시한 동작상 체계와 형태배치다. 고영근(2004)은 한국어 상 체계를 크게 두 부류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누었다. '-어 있다'는 완료상에 속하

4)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참조.
5) 고영근(2004)과 학교문법에서 '동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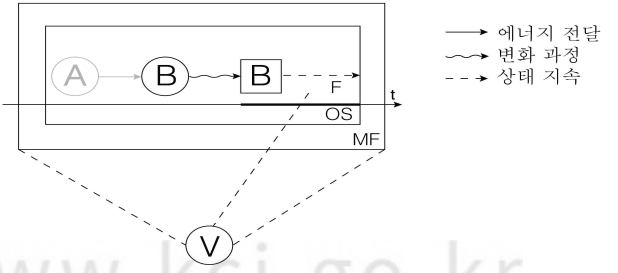
www.kci.go.kr

고 '–고 있다'는 두 가지 상황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고 있다1'는 진행상이고 '–고 있다2'는 완료상에 속한다. 이 분류법은『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어 있다'와 '–고 있다'의 의미 설명과 일치한다. '–어 있다'와 '–고 있다'의 상적 의미와 영상도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어 있다'의 상적 의미 및 영상도식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어 있다'는 동작이나 상태 변화가 완결된 후에 상태가 지속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왜 '–어 있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느냐, 선행동사에 대하여 무슨 요구가 있느냐 등 의문을 해결하려면 완료적 과정의 특징부터 알아봐야 한다. '–어 있다'는 완료상에 속하는 문법 형태다. 임지룡·김동환 역 (2005)이 제시한 완료적 과정의 도식화 양상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1a) 윤곽부여된 시간 구역에서 사건 경과의 시작점과 종결점이 강조된다. 동작이나 상태 변화의 종결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태 지속의 시작점과 겹쳐 있다. 다시 말하면 동작이나 상태 변화의 끝점이 동시에 이 과정에서 변화를 거친 뒤에 최종 상태를 유지하는 시작점이다. 과정이 일어난 곳을 무대로 간주하고 밑의 관중들을 관찰자의 위치로 보면 무대에서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를 더 뚜렷하게 잘 볼 수 있다. 동작이나 상태 변화의 과정에 대하여 언어로 묘사하는 데도 다양한 문법 형태들이 있다. 완료상은 동작이나 상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상태 지속의 시작점에 초점을 둘 때 사용하는 문법적 표현이다. Langacker(2000)가 제시한 전형사건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영상도식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4> 완료상의 영상도식



www.kci.go.kr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전달을 동반한다. Ⓐ는 에너지 전달의 시작점을 간주한다. Ⓑ가 에너지를 받아서 변화가 발생한다. 변화된 상태나 결과는 Ⓑ로 표시한다. (2)처럼 생명체가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행동 변화에서는 에너지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부분은 필수적이지 않다. Ⓑ에서 Ⓑ는 동작이나 상태 변화의 과정이다. Ⓑ는 상태를 유지하는 시작점이며 변화 과정의 종결점이다. 완료상의 가장 큰 특징은 종결점(즉 상태 지속의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선행동사에 대하여 지속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2) 가. 의자에 앉아 있다.
나. 휴게실에 누워 있다.
다. 그는 한 시간 동안 서 있었다.

(2)의 선행동사 모두 자동사이다. '앉다', '눕다', '서다'와 같은 움직임이 주어인 '사람'에 미치는 동사를 '자동사' 또는 '제움직씨'[6]라 한다. (2)는 그림(5)에서 보여주듯이 에너지의 전달이 없으니 Ⓐ부분도 필요하지 않다. (2가)의 행동주체는 서 있다가 피곤해서 의자에 앉았다. 앉기 시작한 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종결점(즉 앉아 있는 상태의 시작점)은 명확하다. (2나, 2다)도 마찬가지다. 또한 '앉다'와 같은 자동사는 지속성을 갖고 있으니 완료상의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한다. 그러므로 이런 종결성을 갖는 자동사가 완료상 '-어 있다'와 결합관계를 이룰 수 있다.

(3) 가. 사무실의 문이 열려 있다.
나. 책들은 책장에 꽂혀 있다.
다. 글자가 노트에 쓰여 있다.

(3)의 선행동사 '열리다', '꽂히다', '쓰이다'는 타동사의 피동형이다. '열다', '꽂다', '쓰다'는 타동사라 일반적으로 문장에 행위주체와 객체가 모두 있어야 한다. 객체는 스스로 동작이나 상태변화를 할 수 없다. 객체의 모든 변화는 주체에 의해 나타나므로 에너지 전달이 일어난다. 이럴 때 그림(5)의 Ⓐ부분은 빠지면 안 되는 에너지 전달의 주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에너지 전달의 과정을 묘사한다면 '주어+목적어+서술어' 이런 순서대로 동사의 원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4)처럼 관찰자가 에너

www.kci.go.kr

6) 남기신·고영근(1985:109)은 자동사(自動詞)를 '제움직씨'라고 부른다.

지 전달의 과정이 아니라 에너지의 변화로 인한 객체의 상태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를 언어로 표현했을 때 자연적으로 객체를 주어로 두고 서술동사도 피동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때 피동형 자체가 동작 변화의 결과가 되고 종결점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타동사의 피동형이 완료상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먹히어 있다', '입히어 있다' 등과 같이 순간 동태성 타동사의 피동형은 사용할 수 없다. 타동사 중의 지속성을 가진 동사와 묘사된 동작 변화의 종결점(즉 상태 지속의 시작점)이 명확해야 완료상 '–어 있다'와 결합할 수 있다.

(4) 가. 그는 일본에서 뉴 비즈니스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남기심·고영근, 1985: 309)
나.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세종말뭉치)
다. 차표에 구멍이 뚫려져 있다.

(4)의 선행동사는 '–지다'를 붙여 형성된 것이다. '알리다', '밝히다', '뚫리다'는 원래 지속성이 없는 동사의 사동형, 피동형인데, 원칙적으로 '–어 있다'와 결합을 못 한다. 그러나 '–지다'를 붙여[7] '알려지다', '밝혀지다', '뚫려지다'가 되어 행위주체가 객체에게 하는 행동을 끝낸 후 결과의 지속성이 생겨서 '–어 있다'와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선행동사의 성질이 완료상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 있다'와 결합할 수 없다.

(5) 가. *얼음이 녹아 있다. (문영자·송홍철, 2007: 185)
나. *그가 콜라를 마셔 있다.
다. *영희가 울어 있다.

(5가)의 선행동사 '녹다'는 자동사인데 명확한 상태 지속의 시작점이 없어서 완료상과 결합할 수 없다. (5나, 5다)의 선행동사 '마시다', '울다' 등과 같은 동태동사는 상태의 지속성이 없어서 완료상 '–어 있다'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이를 통해 선행동사가 그림(4)에서 보여준 완료상의 특징에서 벗어났을 때 완료상과 결합할 수 없는 양상을 볼 수 있다.

7)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다'에 대한 용법은 다양하다. 그중에 (동사 뒤에서 '–어 지다' 구성으로 쓰여) 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 즉 동사 뒤에서 '–어 지다'를 붙여 피동형을 만들 수 있다.

4. '-고 있다'의 상적 의미 및 영상도식

1) -고 있다2

완료상 '-어 있다'보다 '-고 있다'의 상적 의미는 조금 복잡하다. '-고 있다'는 미완료상 '-고 있다1'과 완료상 '-고 있다2'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완료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첫 번째, 동작이나 상태 변화의 종결점(즉 상태 지속의 시작점)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선행동사에 대하여 지속성을 요구한다. 다음은 완료상 '-고 있다2'의 문장 양상이 완료상의 특징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6) 가. 그녀가 모자를 쓰고 있다.[8)]
나. 그가 넥타이를 매고 있다.
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6)의 선행동사인 '쓰다', '매다', '알다'는 타동사이다. 그림(4)의 Ⓐ에서 Ⓑ까지는 에너지 전달을 표시한다. Ⓑ에서 Ⓑ까지는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과정이다. (6가)는 '그녀가 원래 모자를 안 썼다'에서 이제 '모자를 써서' 지금은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모자가 그녀의 머리에 존재하는 순간'은 상태 지속의 시작점이다. 이런 동작이나 상태의 종결점(상태 지속의 시작점)이 명확하고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가 완료상 '-고 있다2'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어 있다'와 '-고 있다2'는 모두 완료상이며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지만 왕파(2016)는 지속상 '-어 있다'와 '-고 있다'는 서로 배타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했다. 이유는 연결어미 '-어'와 '-고'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9)]

2) -고 있다1

'-고 있다1'는 진행상에 속한다. 진행상은 미완료적 과정이다. 앞에 그림(1b)을 보면

8) '그녀가 모자를 쓰고 있다'는 '-는 중이다'로 대신 쓸 수 있는 '진행상'과 '상태 지속'을 의미하는 '완료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6)에서 제시된 예문은 모두 완료상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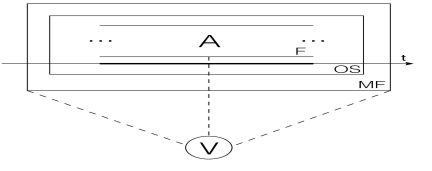
9) 왕파(2016)는 '-어'에 의해 연결된 두 상황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두 상황의 주어가 같아야 되는 반면 '-고'에 의한 연결은 동일주어 제약이 없으므로 앞 동작의 주어와 뒤 상태의 주어가 서로 달라도 된다고 하였다.

미완료적 과정은 진행하는 중인 과정의 한 구역만 윤곽 속에 있다. 그림(1b)을 통하여 미완료적 과정에서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 변화의 일정한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고, 윤곽부여된 시간 구역 내에서 동작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완료상의 특징은 과정이 일정한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는 것이고 동작을 의미하는 선행동사에 대하여 윤곽부여된 시간 구역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 동태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7) 가. 철수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나. 오빠가 서울에 살고 있다.
다. 얼음이 녹고 있다.
라.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

(7)의 선행동사 '보다', '살다', '녹다', '만나다'와 같은 동사는 동태성 의미 자질을 갖고 있으며 윤곽부여된 시간[10]내에 일정한 시작점이나 종결점이 없다.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보다', '살다', '녹다', '만나다'와 같은 동사들은 동태성을 갖고 있지만 윤곽부여된 시간 내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되는 동작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여 동태성을 갖고 계속 진행되는 행동들이다.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 위하여 Langacker(2000)가 제시한 전형사건구조모형을 이용하여 표시된 동작이 균형을 유지하여 계속 진행되는 미완료상 '-고 있다1'의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5> 동작이 균형을 유지하여 계속 진행되는 미완료상 '-고 있다1'의 영상도식



그림(5)가 보여준 듯이 '동작A'는 윤곽부여된 시간 내에서 끊임없이 계속 움직임(즉 동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정에 일정한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다. 이런 성격을 갖는 동사가 진행상 '-고 있다1'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는 동작만 '-고 있다1'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1장에서 제시한 미완료적 과정의 확장 양상인 그림(2a)처럼 윤곽부여된 시간 구역 내에 반복적인 진행, 즉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10) 윤곽부여된 시간은 관찰자가 관찰하고 있는 시간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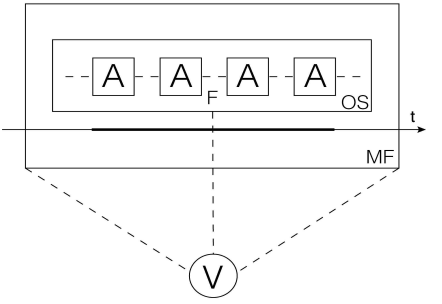
www.kci.go.kr

동사도 '-고 있다1'과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 가. 그는 편지를 쓰고 있다.
나. 그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라. 나는 밥을 먹고 있다.

(8)의 선행동사 '쓰다', '다니다', '끄덕이다', '먹다'는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동사들이다. 이들은 동사 '보다', '살다'와 달리 동태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다. 아까 말하는 '보다', '살다'는 끊임없이 계속 동태성을 노출하는 동사들인데 '쓰다', '다니다', '끄덕이다'와 같은 동사는 윤곽부여된 시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동작을 의미한다. Langacker(2000)의 전형사건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동작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미완료상 '-고 있다1'의 영상도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6> 동작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미완료상
'-고 있다1'의 영상도식



그림(6)의 '동작A'는 윤곽부여된 시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는 선행동사가 문장의 반복적인 진행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에 반복적인 의미를 갖는 시간 부사를 첨가해도 동작의 반복적인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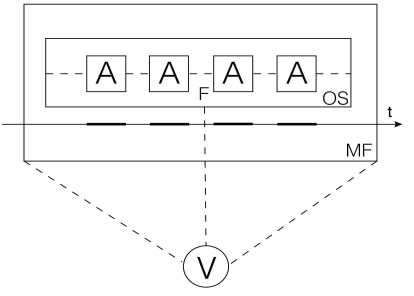
(9) 가. 철수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나.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고 있다.
다. 그는 매일 편지를 쓰고 있다.

www.kci.go.kr

라. 그녀는 수요일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

(9)에서 시간 부사 '가끔', '매일', 조사 '–마다'를 첨가했다. 특별히 윤곽부여된 시간 구역이 없으면 (9가, 9나)의 선행동사 '보다', '만나다'가 의미하는 동작은 계속 움직이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문장에서 반복적인 의미를 가진 시간 부사나 조사를 첨가하여 윤곽부여된 시간 구역을 같이 반복하게 한다. (9다, 9나)의 선행동사 '쓰다', '다니다'는 원래 의미상 반복적이고 이때는 동작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윤곽부여된 시간 구역도 같이 반복하게 된다. 전형사건구조모형을 이용한 시간 반복적인 미완료상 '–고 있다1'의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7> 시간 반복적인 미완료상 '–고 있다1'의 영상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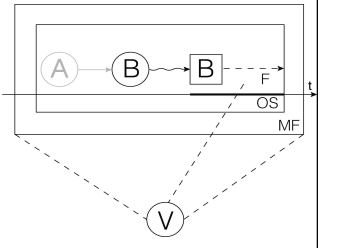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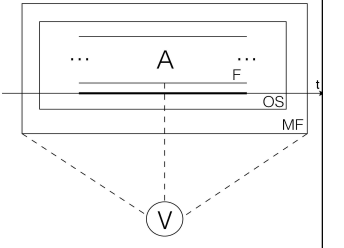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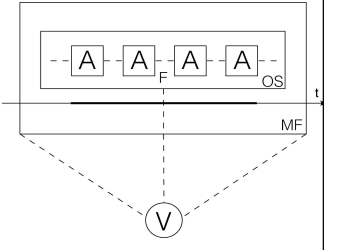
그림(7)에서 윤곽부여된 시간을 반복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작A'는 지속적인 행위나 반복적인 행위와 관계없이 반복되는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동작A'도 반복되었다. 그러므로 상 체계를 분석할 때 상황유형도 고려해야 한다. 앞에 분석한 진행상 '–고 있다1'의 세 가지 영상도식을 통하여 미완료상인 진행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동작이나 변화의 일정한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다. 둘째, 과정을 의미하는 동사에 대하여 동태성을 요구한다.

5. 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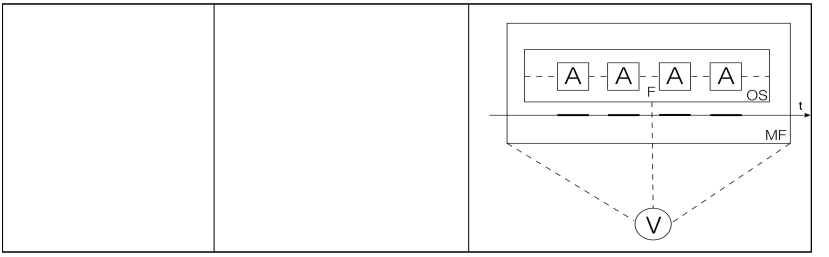
한국어 상 체계는 크게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뉜다. '–어 있다'는 동작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며 '–고 있다'는 다시 '–고 있다1'와 '–고 있다2'로

나뉜다. ‘-고 있다2’는 동작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고 ‘-어 있다’와 같이 완료상에 속한다. ‘-고 있다1’는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며 미완료상에 속한다.

본 연구는 먼저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상 체계를 분석하였고 완료적 과정과 미완료적 과정의 도식화 양상을 살펴보고 미완료적 과정의 확장 양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Langacker(2000)가 제시한 전형사건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양 과정을 도식화 하고 이를 통해 완료적 과정 및 미완료적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완료상 ‘-어 있다’와 ‘-고 있다2’의 영상도식,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지, 동작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지 혹은 시간 반복적인지, 그리고 미완료상 ‘-고 있다1’의 인지적 영상도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h>상 체계</th><th>상적의미</th><th>영상도식</th></tr>
<tr><td>완료상
‘-어 있다’와
‘-고 있다2’</td><td>동작이 완료된
후의 상태 지속</td><td> 
</td></tr>
<tr><td rowspan="3">미완료상
‘-고 있다1’</td><td>동작 계속 진행</td><td> 
</td></tr>
<tr><td>동작 반복적 진행</td><td> 
</td></tr>
<tr><td>시간 반복적 진행</td><td></td></tr>
</table>

www.kci.go.kr



위에 제시된 인지적 영상도식을 통하여 한국어 완료상은 동작이나 상태 변화의 종결점(즉 상태 지속의 시작점)이 명확해야하며 과정을 의미하는 동사에 대하여 지속성을 요구하며, 미완료상인 진행상은 동작이나 변화의 일정한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으며 과정을 의미하는 동사에 대하여 동태성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상도식을 이용하여 한국어 '–어 있다'와 '–고 있다'를 살펴보고 영상도식을 제시하였는데 영상도식을 통해 '–어 있다'와 ' –고 있다1', '–고 있다2' 간의 차이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4.

권순구, 「보조용언 '있다'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제30권 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김성화, 『현대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1990.

로날드 래너커 저, 김종도 옮김, 『인지문법의 토대Ⅱ』, 박이정, 1999.

로날드 래너커 저, 김종도·나익주 옮김, 『문법과 개념화』, 박이정, 2001.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문영자·송홍철, 「'-고 있다'와 '-어 있다'의 변별적 차이」,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제5권,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2007.

박종후, 「보조용언 '있다'의 결합 제약과 상적 의미 해석 -본용언의 개념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학』 제77집, 국어학회, 2016.

서정수, 「국어 시상형태의 의미분석 연구」, 『문법 연구』 제3권, 1976.

볼프강 클라인 저, 신수송 옮김, 『언어와 시간』, 역락, 2001.

왕파, 「지속상 '-어 있다'와 '-고 있다'의 차이 분석」, 『한국어학』 제72권, 한국어학회, 2016.

이숭녕,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1986.

이영민, 「현대국어의 '-어 있-' 구성과 '-고 있-' 구성의 결합 제약에 대한 통합적 기술을 위한 시론」, 『어문연구』 제29권 1호, 한국어교육연구회, 2001,

이호승, 「국어의 상 체계와 보조용언의 상적 의미」, 『국어학』 제38집, 국어학회, 2001.

장석진, 「시상의 양상: '계속'·'완료'의생성적고찰」, 『어학연구』 제9권 2호,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1973.

정태구, 「'-어 있다'의 의미와 논항구조」, 『국어학』 제24집, 국어학회, 1994.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5.

존 테일러 저,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문법』, 한국문화사, 2005.

Comrie. B,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6.

Johnson. M,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87.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91.

Langacker. R. W,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Mouton de Gruyter, Berlin, 2000.

www.kci.go.kr

Smith. C. S, *The Parameter of Aspect*, Springer, Heidelberg, 1997.
Taylor. R, *Cognitive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2.
Wolfgang. K, *Time in language*, Routledge, London, 1994.
국립국어원 세종말뭉치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www.kci.go.kr

Abstract

Image Schema Analysis of Korean Aspect
-Focused on the '-eo issda' and '-go issda'-

Li, Lin Rong·Han, Yong Su
Dongguk University,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octor's course completion
Donnguk Univeristy,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Professor

The question of where on the timeline the event occupies is irrelevant to aspect', which is the various methods adopted to represent the time path of the event. The Korean auxiliary verb 'issda' is more widely used in the grammatical meaning of the sentence than the word meaning. This paper focus on the Korean languages '-eo issda' and '-go issda'. The Korean aspect system has been re-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grammar. First of all, We review the interpretation of aspect system by cognitive grammar, and analyzes the 'Image Schema' of the perfective and the imperfective. Moreover, The two processes are schematized using the 'Stage Model'. We get the 'Image Schema' of intention for the perfect aspect and the imperfect aspect. Then, we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ective and the imperfective through the 'Image Schema'. We try to draw the perfect aspect 'Image Schema' of the '-eo issda' and '-go issda2' through the 'Stage Model'. We also try to draw the imperfect aspect 'Image Schema' of the '-go issda1'. Based on 'the movement continues', 'the action continues over and over', 'time repetition continues' etc., different types classify the progress aspect and show their respective 'Image Schema'. It's worth mentioning that for foreigners learning Korean, understanding grammar should not be limited to form and usage. We should understand Korean grammar on the cognitive level. In this way, we can learn Korean effectively and improve the accuracy of language use.

【Key words】 aspect, cognitive grammar, stage model, image schema, -eo issda, -go issda

www.kci.go.kr

* 논문접수일: 2019.04.18. 논문심사기간: 2019.05.25.~06.08. 게재확정일: 2019.06.29.